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일본이 3개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향후 수출품목 추가규제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동남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상위 20대품목의 세부품목 177개중 의존도가 50%를 상회하는 것은 13개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 및 자동차 관련부품의 경우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없었으며 30% 이상은 자동차용내연기관 1개로 조사되었다.

이와함께 동남권의 대일본 교역증가세가 미약한 수준을 보이면서 무역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도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일본 무역의존도는 2000년 12.7%에서 2017년에는 5.5%로 절반 넘게 낮아져 일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어반, 프로필렌 등 대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일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업체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상황을 지역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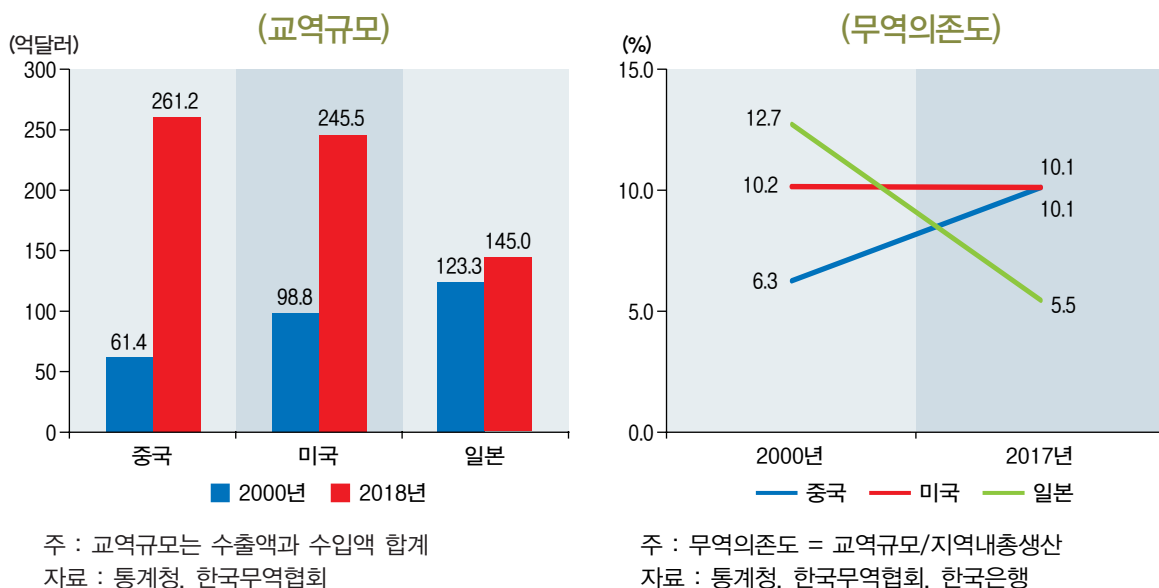
동남권, 대일본 무역의존도 큰 폭으로 하락

동남권의 전세계 수출입 규모는 2000년 692억달러에서 2018년 1,960억달러로 연평균 6.0%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같은기간 중국과의 교역이 61억달러에서 261억달러, 미국은 99억달러에서 246억달러로 각각 연평균 8.4% 및 5.2%의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같은기간 123억달러에서 145억달러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역 증가세가 미약한 수준(연평균 0.9%)에 그치면서 2000년에는 동남권 최대 교역대상국이었으나 2018년 현재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 교역대상국으로 밀려났다.

이로인해 동남권 경제의 대일본 무역의존도(=교역규모/동남권 지역내총생산)¹⁾는 2000년 12.7%에서 2017년 5.5%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같은기간 미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6.3%에서 10.1%로 크게 상승하면서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주요국 교역규모 및 무역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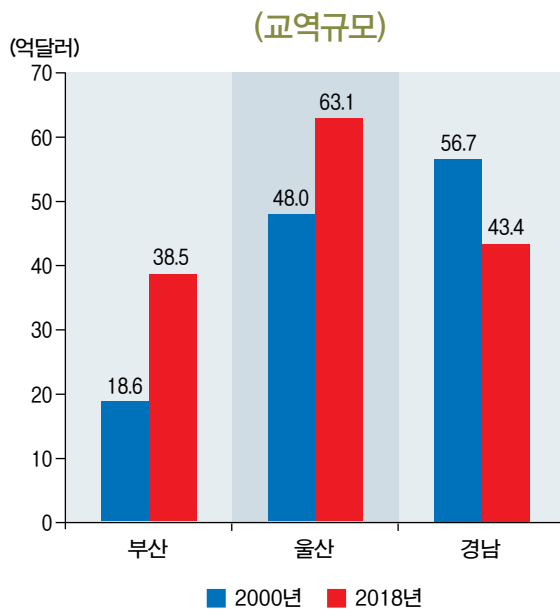
1) 교역규모 및 지역내총생산의 화폐조정은 연평균 환율 적용

지역별 대일본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부산은 2000년 19억달러에서 2018년 39억 달러로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같은기간 48억 달러에서 63억달러로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남의 경우 57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교역액 절대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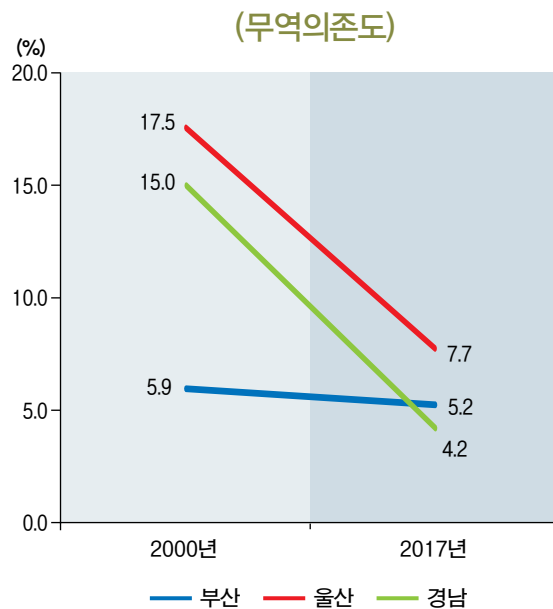
이에따라 경남의 대일본 무역의존도는 2000년 15.0%에서 2017년 4.2%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키아티엠씨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업 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이 감소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에서 대일본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울산도 같은기간 17.5%에서 7.7%로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은 5.9%에서 5.2%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대일본 교역규모 및 무역의존도



주 : 교역규모는 수출액과 수입액 합계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 무역의존도 = 교역규모/지역내총생산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금년 상반기중 대일본 수출 5.8%, 수입 3.8% 감소

2019년 상반기중 동남권의 대일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 3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²⁾. 품목별로는 대일본 전체 수출액의 7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20대 수출품목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1~2위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금은빛백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5위 수출품목인 기호식품, 항공기및부품, 기계요소는 4~12%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수출 상위 20대품목중 레일및철구조물은 전년동기대비 61.4%의 최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초유분은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67.5%)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대일본 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30억 3천만달러로 조사되었다³⁾. 품목별로는 대일본 전체 수입액의 72.6%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20대 수입 품목중 12개 품목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최대 수입품목인 철강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6.0% 증가한 4억 6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자동차부품, 산업용전기기기 등 2~5위 수입 품목이 모두 두 자리수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80.4% 늘어난 형강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57.1%)으로 나타났다.

2) 2019년 상반기중 동남권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625억달러로 조사

3) 2019년 상반기중 동남권 전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339억달러로 조사

동남권의 대일본 수출 및 수입 상위 20대 품목

(천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112,612	-6.8	철강판	463,030	46.0
2	금은빛백금	329,738	-14.5	원동기및펌프	231,339	-16.0
3	기호식품	207,291	12.2	기계요소	154,396	-12.4
4	항공기및부품	138,432	8.2	자동차부품	148,500	-33.2
5	기계요소	133,949	4.3	산업용 전기기기	121,945	-13.3
6	철강관및철강선	128,869	4.1	합금철선철및고철	116,763	13.6
7	레일및철구조물석	122,852	61.4	유제품	98,991	27.1
8	주단조품	108,604	-13.0	철강관및철강선	98,361	-4.4
9	자동차부품	103,642	-2.4	선재봉강및철근	90,015	-13.0
10	원동기및펌프	88,321	4.0	계측제어분석기	75,232	-6.4
11	합성수지	87,671	4.2	전기부품	71,950	29.0
12	정밀화학원료	86,975	19.4	기타화학공업제품	70,991	8.4
13	알루미늄	56,402	-26.0	기초유분	68,714	-12.4
14	어육및어란	54,557	-13.8	석유화학중간원료	68,149	-25.6
15	건설광산기계	50,060	11.9	형강	64,974	80.4
16	동제품	46,752	-38.8	동제품	55,982	-17.6
17	어류	45,077	-11.8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53,369	9.8
18	플라스틱 제품	42,106	39.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2,356	-57.1
19	기초유분	40,396	-67.5	기타정밀화학제품	50,480	-7.1
20	산식물	39,971	-6.2	정밀화학원료	46,528	18.3
20대 품목 수출액		3,024,277	-5.6	20대 품목 수입액	2,202,065	-2.5
총수출액		3,875,875	-5.8	총수입액	3,032,886	-3.8

주 : 2019년 상반기 기준 (MTI 3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일본 수입품목 177개중 13개가 의존도 50% 상회 수치제어반, 프로필렌 등 일부품목은 의존도가 90% 이상

동남권의 대일본 수입 상위 20대품목(MTI 3단위)을 세부품목(MTI 6단위)으로 분류하면 총 177개에 달한다. 이중 수입액 1천만달러를 상회하면서 수입의존도 30%가 넘는 품목은 27개(비중 15.3%), 50%를 상회하는 품목은 13개(비중 7.4%)로 조사되었다.

대일본 수입의존도 1~2위 품목은 화학관련 제품으로 나타났다. 1위는 기초유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품목중 프로필렌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9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석유화학중간원료의 세부품목중에서는 기타석유화학중간원료가 83.5%로 높았다.

3위 형강의 세부품목중에서는 철및비합금강기타형강(63.1%)과 철및비합금강L형강(54.9%)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50%를 상회하였다. 4위 합금철선및고철중에서는 고철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60.6%로 높게 나타났다. 5위 철강판 세부품목중에서는 도금강판(76.3%), 철및비합금강중후판(69.8%),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53.9%)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8위 산업용 전기기기중에서는 수치제어반(99.2%), 12위 원동기및펌프중 불꽃점화식내연기관(69.0%), 13위 전기부품중 탄소부품(63.7%), 16위 석유부품중 자동차휘발유(50.8%), 20위 동제품중 동박(64.2%) 등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남권 주력산업인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⁴⁾과 자동차부품의 경우 의존도가 50% 이상인 세부품목이 없었으며 30% 이상은 자동차용내연기관(45.4%) 1개에 불과하였다.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의 세부품목(MTI 6단위)은 선박용부품,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선박용가스터빈, 예인선, 모터보트, 선박용불꽃점화식엔진, 어선, 요트, 선박용증기터빈, 해양구조물, 기타선박, 화물선 등 13개임

품목별 동남권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

순위	MTI 3단위	MTI 6단위
1	기초유분(60.3)	· 프로필렌(94.8) · 기타기초유분(39.6)
2	석유화학중간원료(51.4)	· 기타석유화학중간원료(83.5) · 스틸렌(43.0)
3	형강(46.1)	· 철및비합금강기타형강(63.1) · 철및비합금강L형강(54.9) · 철및비합금강H형강(33.0)
4	합금철선철및고철(40.3)	· 고철(60.6)
5	철강판(37.8)	· 도금강판(76.3) · 철및비합금강중후판(69.8) ·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53.9) · 용융아연도강판(35.1)
6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34.6)	· 빌레트(46.2)
7	철강관및철강선(26.1)	· 무게목강관(32.1)
8	산업용 전기기기(25.8)	· 수치제어반(99.2) · 직류전동기(33.5)
9	기타화학공업제품(25.2)	—
10	자동차부품(24.1)	· 자동차용내연기관(45.4)
11	선재봉강및철근(23.8)	· 스테인레스및합금강선재(45.0) · 철및비합금강선재(34.6)
12	원동기및펌프(22.9)	· 불꽃점화식내연기관(69.0) · 원동기부품(36.6)
13	전기부품(21.7)	· 탄소부품(63.7)
14	계측제어분석기(19.9)	· 자동제어기(40.8)
15	기계요소(16.5)	· 베어링(30.9)
16	석유제품(15.7)	· 자동차휘발유(50.8) · 윤활유(44.5)
17	기타정밀화학제품(15.1)	—
1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1.6)	—
19	정밀화학원료(7.7)	—
20	동제품(6.1)	· 동박(64.2)

주 : 1) ()내는 대일본 수입의존도

2) MTI 6단위 품목은 2019년 상반기 기준 수입액 1천만달러, 수입의존도 30% 이상 기준

일본의 수출규제, 동남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지난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품목 추가규제 등의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감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별 재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화 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 핵심 소재의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안감을 낮추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 업체별 영향 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30회 이상 1:1 기업별 맞춤형 상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자율준수 기업(ICP)⁵⁾ 활용·연결 지원, 금융지원 등이 계획된 상황이다.

동남권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는 수출규제지원대책단, 울산시는 일본수출규제 원스톱지원센터, 경남도는 민관정협의회 등을 조직하여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부문의 지원노력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BNK금융그룹도 이에 동참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최대 5천억원)을 편성하고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재무상담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5)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자율준수기업(ICP : 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백색국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이 ICP 기업인지 확인하는 여부가 중요. ICP 기업명단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에서 확인 가능

다만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수출규제가 동남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남권의 세부품목(MTI 6단위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일본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지 않은데 근거한다. 주요 수입품목 177개중 수입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수입의존도 30% 이상 품목의 비중은 15.3%,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의 비중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남권 최대 주력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은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 및 자동차 부문의 세부품목중 수입의존도가 30% 이상 품목은 1개였으며 50%가 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선 및 자동차 관련 부품들의 높은 국산화율(80~90%)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의 대일본 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도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남권 경제의 대일본 무역의존도(=교역규모/동남권 GRDP)는 2000년 12.7%에서 2017에는 5.5%로 절반 넘게 낮아져 일본이 동남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어반, 프로필렌 등 대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일부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위기상황을 동남권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품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조]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개요 및 대응절차

■ 규제조치 개요

- 일본은 2019년 7월 1일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 2019년 7월 4일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 *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 2019년 8월 28일 :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

■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전략물자) : 3개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
 - 다만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가능
- (비전략물자) : 캐치올(catch-all) 적용 대상으로 전환

■ 수출규제 대응절차

- (전략물자) : ① 수출자 ICP여부 확인 ② 특별일반포괄대상 품목 확인 (ICP 해당시) ③ 허가별 신청서류 확인 ④ 필요서류 준비 및 대응 ⑤ 공급처 ICP 전환 검토(필요시)
- (비전략물자) : 캐치올 통제대상(우려용도, 우려 최종사용자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정보(품목의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요청시 적극 제공

※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참고문헌]

- 국제금융센터,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따른 장기 영향 우려”, 2019.7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범부처 현장지원단 가동”, 2019.8
-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 2019.7
- 통계청, www.kosis.kr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2019.7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중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BNK人side]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고객을 위한 일이니까,
BNK금융그룹은 고객 안에서
금융의 길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보다**
당신이 **되**어 **보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9-08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9년 8월 29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